

이재명 "산업은행, 첨단기술 투자은행으로 기능 전환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1.12.16 16:11 수정 : 2021.12.16 16:13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테마섹 언급하며
산업은행 투자은행으로서 기능 전환 언급
'디지털 평등권'도 강조

尹 "기업 잘해왔다...교육, 행정, 일자리, 산업 혁명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산업은행을 6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투자은행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미래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기반을 만들기 위해 산업은행의 기능을 '투자' 위주로 전환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기업을 치켜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각 교육·행정·일자리 부문에서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fnDB.

■李 "산업은행, 韓의 테마섹 만들 것"

이 후보의 기조강연 대독을 맡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중 특별세션에서 "싱가포르에 테마섹(TEMASEK)처럼 국부 펀드를 활용해 세계적인 핵심적 기술에 대해 M&A(인수합병)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영 투자사로 글로벌 IT 기업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등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투자가 핵심이다"며 "첨단기술에 획기적인 투자를 단행해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기능을 전환하겠다"며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투자은행으로 혁신적으로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전면적인 규제 개혁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등을 비전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자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디지털 자산의 기반을 갖고 있다"며 "이런 토대 위에서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 부가가치 창출의 성과가) 소수에게 독점적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우리 모두가 기회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며 "더 공정하고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기업 치켜세운 尹 "교육·행정·일자리 혁명 추진"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독을 맡은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기업들을 치켜세운 한편, 디지털 대전환 전략으로는 △교육 혁신 △행정

혁신 △민관·산학 협력 등을 제시했다.

원 본부장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과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기존의 성공 방정식들도 깨나가는 파괴적 혁신 등으로 뛰어나게 해왔다"면서도 "문제는 여기에 인재를 공급할 교육, 기존 산업과의 융합과 공존을 이끌어낼 일자리와 산업 정책, 행정에서의 공공 혁신 등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교육 혁명, 행정 혁명, 그리고 일자리와 산업에서의 혁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취소